

제11회 전북 청소년영화제 성료

너의 꿈, 스크린에 마음껏 담아봤구나



지난 23일부터 25일
까지 3일동안 '전주
지탈독립영화관'에서
열렸던 제11회 전북
청소년영화제가 성황리
에 막을 내렸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해 만든 영
화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영화제는
조직위원장을 맡은 송기도 전북대 교
수의 개막 선언과 구다운(남원국악예
술고 1학년), 고유진(전주유일여고 1
학년) 학생의 사회로 막을 열었다.

개막식에는 김승환 도교육감을 비롯
임석주 장학관, 김영배 전북독립영화
협회 이사, 신동환 무주산골영화제
사무국장,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
지회 정낙성 회장, 서울시립청소년미
디아센터 금길호 팀장 등 영화 및 교
육계 인사 120여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개막 공연은 남원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합창곡 '바람의 성'을 비롯
여러 곡의 합창을 시작으로 남원국악
예술고 연기·영상과 학생들의 뮤지
컬 '서편제' 갈라 공연으로 이어졌다.
개막작은 열네살 소녀 다린의 가족
이 엄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길을
떠나는 여정을 그린 '장례난민'(감독
: 한기람)과 운명적인 슬픔에 맞닥
뜨린 아이들이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살다가도 스스로 어찌지 못할 불
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나약함, 그리
고 서러움이 붓물처럼 터져 흐르는
어느 순간들을 그린 '곰국'(감독
: 신운호)이 상영되었다.

상영작은 총 55편을 선정하여 경쟁
부문 38편, 비경쟁부문 개막작 2편,
초청작 10편, 청소년영화페스티벌 5
편이 상영되었는데 경쟁부문은 전북
지역 학생들의 작품으로 초등학교 11
편, 중학교 8편, 고등학교 19편의 작
품을 4개의 경쟁 섹션으로 나누어 상
영하였고 초청작으로는 대한민국청소
년미디어대전 수상작과 2017 제2회
'옛날 옛적엔' 영상공모전 입상작품
을 상영하였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작년에 이어
중·고생 14명으로 구성된 '관객심사
단'을 운영해 경쟁부문 4개 섹션 38
편 전편을 심사한 후 우수작 3편(초,
중, 고 각1편)을 선정해 관객상을 시



대상에 고창여고 '마이 돌'
김제 만경고 '영화만들기'
김제 용지초 '시간통과'
익산 부송중 '모녀' 등 금상

상했다. 폐막작으로는 대상 수상 작
품과 청소년영화페스티벌 5편을 상
영했다.

대상을 받은 '마이 돌'(고창여고,
양선경 감독)은 전체적인 내용이 다
소 진부하게 느껴지지만 아이들을
좋아하는 학생이 콘서트 대신 엄마
의 생일 선물을 선택하는 과정을 차
근차근 잘 표현해 주었고 다양한 장
소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내면서 더 많은 노력을 한 점
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한다.

이번 영화제 수상작은 도교육감상으
로 대상에 '마이 돌'(고창여고, 양선
경), 날개상(금상)에 '시간통과-물이
필요해'(김제용지초 유지성), '모녀'
(익산부송중 송단비), '영화만들기'
(김제만경고 윤찬), 오름상(은상)에
'내 마음이 보이니'(김제난산초, 장진
영), '우리들의 꿈'(부안여중, 임선
아), '꿈의 식탁'(이리여고, 유지운)
이 수상했다.

그리고 돌움상(동상)에는 '신비로운
약국'(남원산내초, 김마루), '코드네
임: 급식테러'(김제지평선중, 송주
현), '공허'(전주상산고, 손병직)이
각각 수상했다. /정해은 기자

문화재청 산하기관 임의 교체 도마위

평가기구 후보 공모 당시 평가된
전북대 무형유산연구소가 아닌
사단법인 연구원으로 명의 변경
후보 결정과정서 혼선 초래

NGO 협의회 "할당 영역까지
넘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문화재청이 지난 10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
산 평가기구 후보등록까지 마친 전북대 무형
유산연구소를 문화재청 산하기관으로 임의 교
체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유네스코 인가 NGO협의회(이하 협의
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비정부기구(NGO)
육으로 할당된 후보 자리를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이달 초 돌연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한국
문화재단으로 변경하여 통보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문화재청 측에서 평가기구 후보
공모 당시 평가했던 전북대 무형유산연구소가
아닌 사단법인 무형유산연구원으로 명의를 변
경하여 후보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심사위원
후보 결정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했다는 이유
를 들어 평가기구 NGO 선출후보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평가기구는
각국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 6명과 유네스코



인가 NGO 6개 기관 등 12명(기관)으로 구성
된다. 중국민속학회가 올 연말 임기 만료됨에
따라, 내달 4~8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유네스
코 정부간위원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NGO 대표 선발이 예정돼 있다.

협의회는 "무형문화유산 연구소가 사단법인 무형
문화연구원을 설립한 것이 잘못이라는 실무적
인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 NGO
인증을 받은 전북대 무형문화유산연구소는 국립대
학소속이라 NGO 활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
에, 유네스코 지문과 문화재청의 승인 하에
사단법인 무형문화연구원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그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에 전권을 행사
해 왔다. 민간 NGO 단체가 유네스코 심사
위원으로 등장하면 이런 권력을 내놓을 수
밖에 없기에 문화재청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한국문화재단으로 바꿔 치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문화재청이 민간 NGO 육으로 할
당된 영역까지 넘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NGO의 역할은 순수 NGO에 맡기는 것이 옳
다"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해은 기자

목정문화 청년예술상 시상식

문화상 문학 - 정군수, 미술 - 산민 이용, 음악 - 장인숙

청년예술 문학 - 김형미, 미술 - 홍경태, 음악 - 김근혜

목정문화재단은 지난 24일 전북대학교 진수
당 가인홀에서 제25회 목정문화상과 목정청년
예술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김홍식 재단이사장을 비롯 전
북대학교 이남호 총장, 전북애향운동본부 임
병찬 총재, 대한적십자사전북지사 김광호 회
장,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한국예총전북연합
회 선거회 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제25회 목정문화상은 문화부문에 정군수(석
정문화관장·시인), 미술부문에 산민 이용(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집행위원장 겸 총감
독·서예가), 음악부문에 장인숙(한국예총
연합회 소프라노)씨가 수상했다.

김홍식 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전북 문
화예술 발전의 큰 과와 지평을 여가하는 길에
재단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
록 목정문화상을 비롯 고교생대회와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올해 목정문화상은 제정 25주년을 맞이해 특
별상을 마련하고 문학부문 김형미(프리랜서
작가·시인), 미술부문 홍경태(전업작가·조



각가), 음악부문 김근혜(전주시향 첼로수석·
첼리스트)씨에게 각각 목정청년예술상을 수여
했다.

이와 함께 전북고교생을 대상으로 10월 14일
개최한 제8회 전북고교생 목정음악콩쿠르 입
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목정문화상은 고 목정(牧汀) 김광수 씨가 설
립한 목정문화재단이 전북지역의 향토문화 진
흥을 위해 공헌한 문화예술인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1993년부터 매년 문학·미술·음악 3
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하고 있다.

목정문화상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1,000만원의 창작지원비가, 목정청년예
술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500만원의
창작지원비가 각각 주어졌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 덕진공원 영상·사진 공모전

전주시는 덕진공원을 주제로 덕블리(덕진공
원+러블리) 영상·사진 콘텐츠 공모전을 12
월 8일까지 진행한다.

전주 한옥마을을 넘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
듭나기 위해 준비한 이번 공모전은 전주 시민
들이 간직하고 있는 덕진공원의 추억과 사계
절을 비롯해 연꽃으로 물든 푸르른 풍경 그리
고 주변의 맛집이나 카페 등 혼자보기 아까운
덕진공원의 37가지 모습을 사진과 영상에 담
아 제출하면 된다.

덕블리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
나 참여 가능하며, 1인당 5점 이내로 출품하면
된다.

심사방법은 시민심사단 점수와 SNS 추천·
댓글·공유하기 수를 합산해 선정되며, 수상
자는 12월 중에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를 통
해 발표된다.

공모에 선정된 우수작에는 전주시장상을 비
롯해 액션캠, 포토프린터, 풀러로이드 카메라
를 상품으로 지급하며 12월 22일부터 전주 객
리단길에서 미디어갤러리 형태로 전시될 예정
이다.

SNS(공식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jeonjuya/>, 공식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jeonju_dvby/)를 통한 온
라인 접수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페이
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함께하는 변화 행동하는 순창JCI!

어느덧 **순창청년회의소**(이하 순창JCI)가 **41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순창JCI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신·구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을 열고자 합니다.
12월 1일 열리는 뜻 깊은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이임회장 최형원

2017년 **12월 1일(금) 18:00**

순창국민체육센터



취임회장 김종덕

